남원지역 친환경농산물 '서울 식탁' 오른다

市, 올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서울시 동대문구와 감자·당근 등 3년간 공급 협약체결

남원 지역에서 생산된 감자와 당근 등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시 학생들의 식탁에 오른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올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올해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확보하고자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 자치구와 1대 1로 연결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이곳의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남원시를 포함해 전국 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통틀어 최종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시는 다음 달 중 서울시 동대문구와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공공급식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이 곳의 공공급식시설에 친환경쌀과 감자, 당근, 애호박, 고구마 등 60여개 품목을 3년간 공급하기 위한 협약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농가들의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에 큰 버팀목 역할을 기대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가들과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 체험을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 친환경농산물 명산지 육성과 농업·농촌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춘향골 햇감자 출하 작업

남원시 금지면 한 시설하우스에서 농민들이 다 자란 춘향골 햇감자를 상자에 담고 있다. 남원시 금지·송동·수지면 일대는 퇴적 평야지 미사토양으로 배수가 잘돼 감자 생장에 좋고 식감이 뛰어나 미식가들에게 인기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시 제공〉

정읍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전북도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 시책 발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2개 그룹으로 나눠 2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평가에서 경제활동 친화성에서 S등급, 기업 체감도에서 도내 1위인 A등급을 받았다.

또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1기업 1담당제 운영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이차 보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익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및 낙후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허맵,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을 위한 브랜드 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된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정읍과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경로당 37곳서 노인 인지증진 강화 훈련

고창군은 지역민의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37개소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6일까지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공간인식 능력을 높이고 종이접기·꽃 가꾸기 등 비약물 치료로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등 뇌 자극 훈련 인지강화 일환으로 추진된다.

또 프로그램은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성과 자존감,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경로당 인지증진 프로그램이 노년기의 건망증, 경도인지장애에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의 예방과 증상의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야생동물 특별전

독수리 박제표본 등 20일부터 전시회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이 야생동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특별전을 마련했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호남권 최초의 대학 자연사박물관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표본 등 전시물 확보를 통해 자연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자연 그대로의 소중한 친구'라는 주제로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시는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먹이, 놀이 등 생태적 특징과 이들에 대한 위협요인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함께 살아가려는 방법 등의 의미를 담은 4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동물의 놀이 모습 및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 사진 80여 점을 비롯해 독수리, 수달, 매, 수리부엉이, 노루, 고라니(골격표본 포함) 등 박제표본 31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박제는 이른바 '로드킬'이나 유리창 충돌, 자연적 죽음 등으로 인한 폐사체로 제작돼 교육적 효과를 더했다.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과 전주동물원, 경남야생동물센터와 전북야생동물센터의 협조로 전시콘텐츠와 동물박제가 한층 다채로워졌다.

특별기획전 관람 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의 옛 모습 되살릴 역사 기록물 모집

군, 주민 생활상 관련 일기·편지·월급봉투 등

순창군이 옛 모습을 기억하고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에 관한 기록물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1980년대 이전 순창의 모습, 주민 생활상, 한국전쟁과 관련한 소장 기록물 등이다.

구체적으로 일기, 편지, 증명서, 메모, 책자, 문서, 사진, 필름, 동영상, 포스터, 전단, 엽서, 월급봉투, 신분증, 배지, 상장, 상패 등이다.

응모작은 심사 및 전시회 후 돌려준다.

군은 대상 1명(상금 50만원), 최우수상 2명(30만원씩), 우수상 4명(10만원씩), 장려상 10명(5만원씩)을 포상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전 국민 누구나 3월 29일까지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현 순창새마을금고 자리에 있었던 농촌지도소 건물 한켠에 자리한 1970년대 순창자수센터. 〈전라북도청 제공〉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063-650-121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군산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군산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나선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2억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형(7억7200만원)과 민간취업 연계형(4억9400만원) 사업을 추진한다.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형은 3개 사업으로 ▲창업희망키움(청년 창업가 40명에게 매월 일정 활동비를 최대 24월까지 지원) ▲수제창작플랫폼 구축(상반기 개소 예정인 청년창업센터와 연계한 판매전시공간 마련) ▲청년1번가 공공임대(청년창업자에게 구도심 공실 상가에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료 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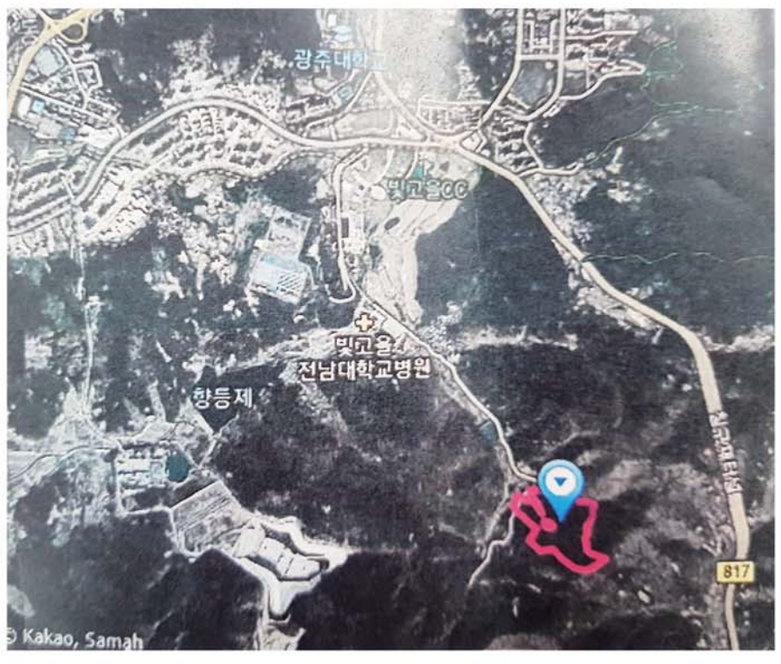
민간취업 연계형은 민간과 연계한 6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가 인건비 90%와 사회보험료(사업자부담금)를 지원하고, 민간 기관은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군산시 생활임금(시급 9018원)을 받는 근로조건으로 최대 10개월간 각 기관에서 근무하며 현장경험을 쌓게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